젊은 그들, 꿈을 향한 행복한 연주

호남예술제 출신 최지혜·장소희·김현진씨 16일 광주시향과 협연 무대

16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 기획연주회에는 미래를 기약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향이 지역 출신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 지난해말 진행한 공식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연주자들이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연주자는 플루트의 최지혜(28), 첼로의 장소희(25), 바순의 김현진(25)씨 등 모두 3명.

지난 12일 광주시향연습실에서 세 사람을 만났다. 최씨 등은 14일부터 시작되는 단원들과의 리허설을 앞두고, 구 지휘자와 미리 호흡을 맞추기 위해 이날 시향을 찾았다. 구 지휘자는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며 최씨 등과 일대일로 1시간 30분씩 함께 연습했다.

최씨는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조목 조목 짚어주고 음악적인 견해나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12일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습실에서 함께 포즈를 취한 구자범 지휘자와 최지혜·장소희·김현진〈왼쪽부터〉씨. 이들은 오는 16일 협연무대를 함께 꾸밀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디션 통과 '헝가리 음악의 밤' 연주

"더 큰 무대위해 독일·미국 유학 준비"

이번에 무대에 서는 이들은 초·중학교 시절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었다. 최씨는 신광여중 재학 시절 두 차례 최고상을 받았고 장씨는 동운초 6학년 때 역시 최고상을 수상했다. 조대부고 1학년 때 바순을 시작한 김씨는 중흥초등학교 시절 관악합주반으로 호남예술제에 참가해 수상한 인연이 있다.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를 거친 장씨는 동아콩쿠르에서 2위 입상했으며 수원시향과 협연무대를 가졌다. 현재 미국 예일대(전액 장학생), 줄리어드 음대, 피바디 음대 등에 동시 합격,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이어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광주예고·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최씨는 현재 광주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한양대를 거쳐 독일에 체류중인 김씨는 지난해 동아콩쿠르에서 2위 입상했으며 베를린국립음대, 쾰른 국립음대 진학을 준비중이다.

'헝가리 음악의 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최씨 등은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환상곡 작품 26', 포퍼의 '헝가리광시곡 작품 68', 베버의 '헝가리풍 론도 작품 35'를 협연할 예정이다.

세사람은 이번 연주회에서 개런티를 받는다. 보통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갖는 것 자체가 드문 경험이라 오디션을 통해 무대에 설 경우 개런티를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이다. 광주시향이 오디션 선발자에게 연주비를 지급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무대에 서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던 이들은 "개런티를 지급한다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기분도 좋다"고 말했다.

20대 젊은 연주자들인 세사람이 이번 무대에 거는 기대들도 남다르다. 가을 학기부터 독일과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김씨와 장씨는 협연무대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거라 믿고 있다.

연주회를 위해 독일에서 귀국한 김씨는 "프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게 처음이라 떨리고 기대도 된다"며 "이번 연주회를 발판으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연주자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독주와 달리 협연 무대는 좀처럼 갖기 어려운데 이번 무대가 연주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향은 이번 연주회에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5번', 리스트의 '헝가리광시곡 2번' 등도 들려준다.

구 지휘자는 "이번 오디션은 광주·전남 출신 연주인들이 광주시향과 함께 연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솜이불처럼 포근한 '목화 사랑'

이혜경 개인전 15~21일 대동갤러리

'목화' '양귀비꽃' 연작 선보여

'목화'

목화꽃에 안기면, 포근하게 잠이 올 것 같다. 서양화가 이혜경씨가 광주(15~21일·대동갤러리)와 서울(5월10일~17일·종로구 인사동 선화랑)을 오가며 솜이불처럼 포근한 목화꽃 그림을 펼쳐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이씨는 화면 가득 목화꽃으로 채운 '목화' 연작과 붉은 꽃잎을 강렬하게 표현한 '양귀비꽃' 연작을 선보인다.

목화 연작은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꽃잎이 떠다니는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는가 하면, 황토색과의 대비를 통해 새하얀 빛을 더욱 강조했다.

또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의 긴장감을 통해 삶의 희망과 긍정의 힘을 담아냈다. 양귀비꽃 연작은 화려한 색채 감각과 섬세한 표현이 돋보인다.

미술평론가 송청문씨는 "거대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단련해 온 삶에 대한 마음의 온기가 꽃이라는 자연의 이미지를 대신해 상상적 공간 안에서 빛을 발했다"고 평했다.

조선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4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현대회화 초대전, 한미여성 감성의 교류전, 한일미술교류전 등의 단체전에 출품했다. 광주전남여류화가회장과 무등갤러리 관장, 광주미협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무등회원, 한국미협 부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집스러움 묻어나는 이야기 쓰고파"

광주 출신 박솔뫼씨 자음과모음 신인상 '을' 출간

"3년전 미국을 여행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썼는데 당선됐어요. 아직도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칭찬해주셔서 기분 좋았습니다."

최근 '제1회 자음과모음 신인 문학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박솔뫼 씨(25)의 소설 '을'(자음과모음 펴냄)이 출간됐다.

기존의 익숙한 문학적 코드를 과감하게 무너뜨리거나 변주해 내면서 설득력까지 갖춘 걸출한 신인을 조명한다는 문학상 취지에 걸맞게 박씨의 첫 번째 작품은 새롭고 낯설며 자기만의 뚜렷한 문체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한 비전공자며 20대 신예라는 점에서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설은 이국의 한 호텔에 머무는 장기 투숙자 5명의 남녀가 서로 스치고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21세기 '노마드적 인간'의 초상을 그려낸다. 이국의 한 호텔에 장기투숙하며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생활하는 주인공 '을'과 "침묵의 행간을 짚어낼 줄 알았던" 남자친구 '민주'를 중심으로 성별도, 인종도, 삶의 목표도 중요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일상과 행위를 속도감 있게 다뤘다.

그녀는 이번 책을 내면서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일상적이지 않는, 독창적이고 고집스러움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박씨는 조만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것을 엮어 새로운 작품을 출간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봄을 여는 우리 가락

국악협회 신춘공연 15일 광주문예회관

광주국악협회(회장 이대휴)가 마련된 2010 신춘공연이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사자춤, 가야금 병창, 땅재주, 버나 돌리기, 진도북춤 등 신명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소리꾼 윤종호씨 등이 출연하는 '향단이 바람났네' 등 해학 넘치는 무대도 준비돼 있다.

특히 전통연희단 '난장앤판'이 출연하는 공중 줄타기는 광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무대로 한국 전통 줄타기의 익살과 재담, 묘미를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김광복, 문명자, 방성춘, 고현미씨와 터울림 전통예술원 예술단 '별빛 가얏고', 나빌레라 국악예술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24-8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벨칸토 성악아카데미 연주회

1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지난 1991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벨칸토 성악아카데미(회장 안재섭·**사진**) 제 24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으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진수정·나혜숙·김선희·이계화·김혜미, 메조소프라노 임선아, 테너 이진희·구제창, 바리톤 김용원씨 등이 출연한다. 피아노 반주는 이영아·임리라·박지현씨.

연주 레퍼토리는 김동진 곡 '동심원', 현재명 곡 '오라', 김성태 곡 한송이 흰 백합화', 김연준 곡 '청산에 살리라' 등 아름다운 가곡과 오페라 '카르멘', '로미오와 줄리엣', '돈 지오반니', '코지 판 투테'의 아리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람개비도서관 슈넬 초청 특강

바람개비 어린이도서관이 15일 독일 발도르프 교육 예술가 미하엘 슈넬(71) 초청 특강을 갖는다.

이날 특강에서 미하엘 슈넬은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병리현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비 회당 2만원. 문의 062-433-127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